

글로벌 교육의 새로운 메카

한적한 농촌마을이었던 대정에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세계 유수의 국제학교들이 들어서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선 이곳은 글로벌 교육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신화역사로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50-11 ~ 안덕면 상천리 480-37(약 9.1km)

서광사수동로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856-2 ~ 안덕면 서광리 1788-1(약 0.4km)

서광동로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2-42 ~ 안덕면 동광리 1394-9(약 2.7km)

동광로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323-2 ~ 안덕면 동광리 산32(약 3.4km)

동광본동로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6-2 ~ 안덕면 동광리 1387-2(약 0.6km)

신화역사로 | 신화역사공원과 제주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조성되는 부지를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도로명이다. 이 길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부터 안덕면 상천리까지 약 9.1km에 이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제주와 세계의 신화와 역사, 문화를 테마로 하는 한국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만 8천의 신들의 섬인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자원화해서 제주의 또 다른 명소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다. 그 첫 걸음이 2014년 개장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다. 제주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한다. 그런 점에서 제주와 하늘, 그리고 비행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항공역사관에서는 제주의 하늘길을 만들어낸 하늘을 향한 인류 도전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천문우주관에서는 동서양 천문학의 역사와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주에는 수명을 관장하는 노인성, 말을 관장하는 방성, 인간의 장수와 재물을 관장한다는 칠성과 같이 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제주의 하늘을 보며 별을 노래했던 옛 선비들처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하늘과 우주를 향한 호기심을 채워 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만날 수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의 위상에 걸맞게 동북아의 교육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조기유학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학교들을 유치해서 국내에서도 유학을 간 것과 같은 환경에서 글로벌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여러 국제 학교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학교 주변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근의 관광지를 가기 위해 지나치는 길에 불과하던 이곳에는 많은 주택들과 상가들



한국국제학교

이 들어서면서 영어교육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구색을 갖추나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제학교와 영어교육센터, 주거시설과 문화시설들이 들어서고,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세계적인 글로벌 교육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서광사수동로 / 서광동로 | 서광리

신화역사공원의 인근에 위치한 서광리는 서광서리와 서광동리로 나뉘어져 있다. 이 마을을 지나는 길 중에 **서광사수동로**는 녹차분재로에서 시작해 서광서리를 지나며 중산간서로와 만난다. 이 길의 이름은 이곳에 있는 바위가 마치 뱀의 머리와 닮았다는 데서 용수동으로 부르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사수동으로 바뀐 지명을 반영한 것이다. 또 다른 길은 서광동리에서 시작해 신화역사로로 이어지는 **서광동로**이다. 서광동리는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와 항파두리성을 쌓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였는데 그 때 탈출한 사람들이 이곳에 숨어 산 것이 마을의 시작이라고 전한다. 서광동리 서쪽에 있는 넝게오름에 넝게물을 사용하던 큰 사찰이 있었다고 전하는 것을 보면 이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다. 넝게물은 동광리와 서광리 사람들의 식수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서광동리에는 '서광이 비치는 숲길'이라는 곳자왈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다. 2km 남짓한 짧은 길 이어서 30분 정도면 둘러볼 수 있다. 송이가 깔려 있는 길을 가볍게 걸으며 나무와 돌이 만들어내는 신비한 자연을 즐길 수 있다.

동광로 / 동광본동로 | 동광리 큰넝게

동광육거리에서 신화역사로와 만나는 **동광로**는 동광리를 지나는 중심 도로이다. 이 길은 평화로와 연결되어 있어 대정과 안덕 사람들이 제주시에 갈 때 자주 이용하는 길이다. 동광리는 360년 전에 만주골이라는 곳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동광리의 중심 마을은 삼밭구석이었다. 삼을 재배하는 마을을 의미하는데, 한자표기로 마전동(麻田洞)이라고 했다. 이후 동광리는 몇 번에 걸쳐 이름이 바뀌다가 동광리(東廣里)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동광리에는 본동과 양잠단지 두 개의 마을이 있다. 동광리 노인회관 인근에서 동광로와 만나는 **동광본동로**는 동광리 본동을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1998년에 문화마을이 새로 조성되면서 이와 구분하기 위해 예전의 마을을 본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동광리에는 4·3사건의 현장으로 잘 알려진 큰넓궤가 있다. 이곳은 토벌대로 인해 동광리 마을이 불에 타자 마을 사람들이 피신했던 곳이다. 갈 곳이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큰넓궤에서 지내야 했다. 이 굴에는 120명에 이르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토벌대에 발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만다. 이후 무동동과 마전동에 마을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살게 되었다. 오늘날 큰넓궤는 4·3사건의 순례지로 자주 찾는 곳이 되었다. 큰넓궤의 이야기는 영화 <지슬>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